



2002. 10. 26 '국제 반전 행동의 날' 집회에 반전 단체들과 연대해 참여한 동성애자 인권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 4기 출범

‘모든 억압의 굴레를 넘어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97년 대학교2학년, 나의 성 정체성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 시절, 우연히 학교를 지나다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를 봤습니다. 그때 게시판에 써 있던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이라는 문구와 회원모집광고는 지금까지도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전화번호를 적고 몇 번을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을까... 그때의 그 실수(?)가 지금까지 제가 동인련에 있을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었나 봅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안전 동인련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담배를 뽕뽕 피우며 책상 앞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동성애자들의 삶과 억압에 대해 논의했던 모든 시간과 커밍아웃이라는 두려움에도 조금씩 얼굴을 가리고서라도 무지개깃발 아래 집회행진을 했던 제 모습이 동인련에 대한 애정을 갖게 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2면>

HOT LINE (Hope Opens Tomorrow Line)

START! 동성애자 상담센터 (2월예정)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01년 해외 성적소수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아스트리아 기금 지원자격을 부여받아, 동인련 활동가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제출팀을 구성하여, 2002년 말 동성애자 차별법 폐지운동과 상담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HOT LINE PROJECT 기금을 받게되었습니다. 1년에 한화로 약 2000만원의 기금을 받게 되며, 최장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현재 1회 기금을 수여받은 상태입니다.

HOT LINE PROJECT 실시에 따라 동인련은 현존하는 동성애자 차별법인 청소년보호법의 동성애자 관련 조항 개정을 위한 운동과, 동성애자 대중을 상대로 한 상담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HOT LINE PROJECT는 동인련만의 사업이 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열려있는 사업이며 아스트리아에서 부여한 기금은 한국 동성애자권익의 향상을 위해 한국 동성애자 모두에게 부여된 기금

입니다. 현재 동인련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홈페이지 제작과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동성애자모임 '사람과 사람'의 쿼터가이드 제작을 지원한 바 있고, 동성애자 건강증진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차별법 개정과 동성애자 전용 상담기구의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10면>

동인련 재정마련을 위한 버튼 판매

예쁜그림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정이 동인련에게 큰 힘이될것입니다.



동인련 새 사무실 마련



INDEX

4기출범	2P
2002년 동인련 10대 활동	3P
AIDS	4~5P
exzone	6P
영화감상	7P
기획기사	8~9P
HOT LINE	10P
축하와 연대	11P
2003 겨울 캠프	12P

동성애자 인권연대 4기 인사익클 <4기 동인련 대표에 나서며>

누가 들으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설치고 있다고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인련 안에서 상담을 하면서도, 집회 나가서조차 집회참여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군 정신병원에서 밤마다 독방을 쓰면서, 그리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면서, 동인련 안에서 동성애자들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사람을 보호한 것이 아닌 나를 보호하고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동인련의 모습이 그런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습니

다.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인련은 동성애자 개개인들에게 노후보험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구요. 어느 단체가 완벽할 수 있겠나만은 그 완벽을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서는 동인련이었기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합니다.

동성애자 개개인들에게 대한 노후보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합니다. 97년에 건설되어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역사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표자격문제를 비롯해, 정책에 대한 논의부실로 인하여 동인련이라는 모임자체의 존재위기도 있었고, 세명의 대표 모두 좋은 모습으로 대표직을 사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가 대표를 맡는 건 엄청난 부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욕을 먹고 내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동안 내가 있어왔고,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동인련이라는 모임이 발전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동인련 속에서 만난 활동가가 있었기에 감히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동성애자들은 인터넷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고, 많은 청소년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고민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동인련이 해왔던 중요한 역할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의구심도 들지만, 주변에서 동인련을 지켜보고, 지지해주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동인련 활동가들이 있기에 힘을 내려합니다. 그 동안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현실에 힘없이 무너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 더 질 좋은 사회가 올 것이라고 감히 단정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동인련 안의 젊음을 믿습니다. 젊음은 동인련의 최대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 동인련 내외적 발전을 위해 조금씩 발을 디딜 것입니다. 그동안 동인련이라는 단체명에 중심을

둔 활동을 해왔다면, 이제는 차별받는 동성애자들의 삶에 중심을 둘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스스로 그 억압을 깨지 않으면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동인련의 원칙을 고수하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인련의 활동을 지금과 같이 애정어린 비판과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전투적인 동성애자로 때로는 가장 께스러운 동성애자로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 무엇보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대표로서가 아닌 동성애자 한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2002. 9. 26
동인련 네번째 대표 정을

동인련 4기활동가 인선결과

대표 : 윤(GAY / 1기 홍보, 선전국장 / 3기 2001 대학캠프기획단장 / 3기 다이크6호편집인 / 3기 신입교육담당)
사무국장 : 승우(GAY / 총커지모활동, 3기 사무국장 /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실무책임자 역임 / 2001 대학캠프실무책임자 / 2002 겨울캠프준비단활동)
상근활동가 : 종익(GAY / 1기 정보통신국장 / 사무국장, 3기 상근활동가 / 2002 여름인권캠프 실무책임)
H.O.T LINE 전문상담준비팀 :
변공(LESBIAN / 2기, 3기 출판국장, 세미나준비담당 / H.O.T LINE 준비팀활동 / 2002 여름인권캠프 강연)
나라(BISEXUAL / 2002 초연세대 컴퓨터게더 회장 역임 /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컴퓨터게더 실무진 / H.O.T LINE 준비팀 / 3기 대학캠프 연세대실무진 / "다함께" 활동중)
세미나담당 활동가 : 김태희(이성애자 / 3기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활동)
번역 및 해외담당 활동가 : June (GAY)
사진담당 활동가 : 옥 (GAY)
편집 및 디자인 담당 활동가 : 류이찌 (GAY)

동성애자인권연대 10대원칙

-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현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성적 소수자들 내부에서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을 비롯한 계급적, 계층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조직과 유지에 기여한다.
- 우리는 다양한 동성애자 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 탄압, 소외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인권단체간의 연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후원회원,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는 2003년 내부 일정

1. 토니의 수화교실

동성애자인권연대회원이자 청각장애인이자 "토니"님이 주관하는 행사로 동성애자 내에서조차 소외되었던 소수자들과 좀더 가까이 하고자 개설되었습니다.
<과정> 3개월단위로 개설이 됩니다.
초급반 / 중급반 (초급반은 1월5일 첫 수업)
<비용> 3개월 5만원(1개월 2만원) : 이 기금은 모든 동성애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언제하나> 매주 일요일 3시-5시

2. 동성애영화보기

동인련회원들과 후원회원들과 편히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화를 보며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서로 몰랐던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행사로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현재 매월 격주(한달에 두번)마다 영화보기를 하고있으며, 영화선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1월의 영화
11월 (토)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 25일(토) "하지만 난 치어리더 인걸"

3. 2003 세미나

8명의 토론준비자가 각자 맡은 말에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 회원 / 후원회원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이고 집중세미나 기간을 두어 연말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8명의 토론준비자 : 정을 / 고승우 / 변공 / 이나라 / 박종익 / 여기동 / 최이연 / 김태희
1월 : **다함께** 겨울 토론회 '변혁인가 아만인가' 대표 강연 - 동성애자 해방을 위한 투쟁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 토론준비자 세미나 진행
8월 : 건강교육 진행(여기동)
10월11월 : 집중세미나기간
12월 : 그동안 했던 세미나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북" 발간 및 학술토론회 진행

2002, 동성애자인권연대 10대 활동

1. 국가인권위원회

- 3월20일 동성애자 차별적 사전 실태조사 발표 및 인권위진정
서울대, 고대, 연대, 외대 동성애자모임과 공동으로 동성애 차별적 사전표기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가인권위에 공동진정을 내었고, 그 결과 11월15일 사전 표기를 발간하는 국립국어연구원과 9개 출판사에서 사전 속 차별적 표현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12월23일 야후 코리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동성애'를 성인검색어로 지정한 야후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2. 엑스존

- 1월9일 엑스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은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8월14일 엑스존 1심 패소 판결. 현재 재판항소심 계류 중이고 국가인권위에 엑스존에 대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트랜스젠더

- 5월30일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
현재 한국 사회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법안에 대해 소토론회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동인련 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냉대와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의 호적 정정을 위한 첫 토론회였습니다.
- 7월10일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을 위한 입법공청회 참여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홍신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은 입법발의한 상태이며, 최근 연예인 하리수씨가 호적정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2000만원이상이 드는 성전환자에게만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등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AIDS

- 6월10일 HIV/AIDS 감염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집회개최
4월 국립보건원에서 감염인 지원중단(면역체계검사, 바이러스수치검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HIV/AIDS감염인모임 Love4One, 동성애자인권연대로 구성된 긴급대책위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국립보건원 앞에서 감염인 의료권보장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갖고 보건원장 앞으로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1월29일 HIV/AIDS감염인 인권보장을 위한 캠페인
12월1일은 UN이 지정한 세계에이즈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보건의료단체연합, LOVE4ONE과 함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입구에서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유인물과 콘돔을 배포하였습니다.
- 그외 [10월18일 국립보건원의 2002 에이즈현황에 대한 발표]에 대한 유감표명 및 [HIV 감염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무지함과 무리한 수사확대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5. 양심적병역거부

- 7월4일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12월17일 양심적병역거부 국제토론회에 참여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국제토론회에 준비 및 참여를 하였고, 외국의 동성애 단체들이 양심적병역거부운동에 어느정도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지, 한국의 동성애단체가 왜 이 운동에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6. 연대 (레인보우깃발을 들고...)

- 3월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8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참여
시민난장에 참여하여 레인보우 밴지와 검열반대 블루리본 밴지를 판매하였고, 또 문화연대와 함께 청보법 개정을 위한 "박"터트리기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자 탄압과 처형에 대한 항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성애자인권을 탄압하는 '청보위'와 정통윤 위원장 및 위원들, 매체심의위원, 전문위원의 신상을 공개하며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마녀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 5월1일 메이데이 참여
노동자는 사회에서 억압받는 계급으로 동성애자 억압의 원인과 같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 대부분이 노동자계급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그들은 항상 해고의 위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동성애자의 연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 9월4일 동인련활동가 고승우 국가보안법으로 연행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고승우를 석방하기위한 캠페인 및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학생조직 다함께 그들과 민주노동당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알려내며, 고승우씨를 위한 면화와 모금조직으로 동성애자 20명 이상이 면화를 갔으며, 150만원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 10월26일 국제공동반전행동/ 전쟁반대 집회 참여
전쟁은 동성애자를 포함해 모든 민중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1933년 독일의 나찌 지배하 동성애자들은 대량학살과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었고, 아직도 그들을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속에서 보여주었듯 전쟁은 동성애자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에 전쟁반대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11월30일 - 12월1일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 및 참여
조치원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전국인권활동가대회는 30여개의 인권단체/ 14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한 자리로 동성애문제에 대해 알리고, 타단체와의 연대와 교류를 다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 12월14일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참여
10만 국민이 시청에 모이는 이날, 동성애자들도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죽어간 미선, 효순양을 추모하기 위해, 또한 연대의 의미로 함께 하였습니다.

7. 인권캠프

- 1월18일 - 20일 제1회 겨울 동성애자인권캠프
동인련이 주최를 하고 한국인권재단의 공식후원을 받아 진행한 행사로 80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고, 동성애자들에게 다양한 인권이슈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 8월16일 - 18일 여름 동성애자인권캠프
소수 인원이 참여해 아쉬움을 남기는 행사였습니다.
- 2003년 2월8일 - 9일 제2회 겨울 동성애자인권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개 동성애단체의 공동주최로 동성애자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캠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8. 동인련 4기 출범

퀴어문화축제문제로 불거진 동인련안팎의 문제는 3기 임태훈대표가 사임을 하고 4기 안정길대표가 회원들에게 인준을 받으며 1차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 단체와의 교류문제로 인해 결국 12월 동인련사과문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발송함으로써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9. 일상사업 본궤도 진입

활동가조직이 아닌 동성애자대중과 함께 한다는 기초아래 다양한 회원들과 즐길 수 있는 일상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부터 격주간 "동인련이 준비하는 동성애영화보기"를 실시해왔고 2003 1월5일부터 "토니의 수화교실"을 열 예정입니다.

10. 송년의밤

- 12월28일 송년의 밤 개최
동인련회원과 후원회원, 동성애자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모였습니다. 비좁은 사무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인권에 대해 얘기하며 밤새도록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레즈비언과 AIDS

-변공(동인련 회원, 레즈비언)

98년의 일로 기억한다. 그 즈음 나는 내 성적 체성을 깨닫고 동인련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 날 나는 대학 동아리실에서 또 한 명의 여자선배를 붙잡고 짐짓 심각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꺼내놓은 비밀에 당황했는지 아니면 그 진솔함에 감동했는지 늘 정숙함을 유지해오던 선배도 최근 자신과 교체하는 애인과 있었던 은밀한 일-지난 번 애인과 단 둘이 여행을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를 털어놓았고, 서로의 비밀을 하나씩 공유한 우리는 한창 애뜻한 대화를 전개해 나갔다.

선배가 임신의 두려움에 대하여 토로하자, 그 자리에서 난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다는 듯이,

"전 평생 피임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에이즈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하고 말해버렸던 것이다. '동성애=에이즈'라는 관념이 어쩌나 어이없이 뿌리깊은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게다가 내 말을 들은 선배까지 '그래, 에이즈는 조심해라'라고 염려해줌으로써 그건 단지 나만의 오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다.

그 때 나는 에이즈가 성관계에 의해 전염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몰랐던 것 같다. '동성애=에이즈'라는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그냥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동성끼리 성행위할 때 에이즈 감염 확률이 더 높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인련에서 5주간의 회원교육을 받고 '정회원'으로 승급한 상태였는데도 그러했으니, 지난 동인련의 회원교육도 얼마나 에이즈에 대해 추상적이었으며, 교육내용이 게이중심적이었던 것인지!(내가 교육받을 때 즐겼다고 생각하지 말라. 난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정회원'이 되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교육을 들었다.)

하튼 그러한 무지에 의하여 나는 커뮤니티에 들어온 지 한 일 년 정도는 에이즈를 내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위험으로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게이들의 섹스 스타일



2002. 12. 1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에 참여한 동성애자 인권연대

중 하나인 항문섹스가 에이즈 감염확률이 높은 방식이기 때문에 게이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고, 레즈비언 섹스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안심하며 좋아라 뛰어다니지는 않았다. 그때까지 연애를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실천 속에서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의 무지를 조장한(?) 사회적 인식이 은근 화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성 동성애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럼 '동성애=에이즈'가 아니라 '남성 동성애=에이즈'라고 인식되는 것이 그나마 더 타당할 것 아닌가. '동성애=에이즈'라는 것은 여성 동성애는 없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조차 여성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품고 있었으니 기본 줄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하튼 레즈비언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나는 그러한 이유에 의하여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들만의 관심사로 치부되는 분위기를 느꼈다. 하지만 에이즈라는 것이 개인 삶에 직결된 위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전체에 대한 정치적 공격 무기가 될

때, 남성 동성애자가 공격받는 현실에서 여성 동성애자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동성애=에이즈'라는 도식 속에 담긴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도 에이즈를 동성애자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여성 동성애자의 존재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여성 동성애자가 여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지점에서 또한 남성 동성애자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이 점이 잘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동성애자가 에이즈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이즈는 인권문제다. 각 집단의 인권문제는 서로 코가 걸린 그물망과 같아서 한 쪽이 취약하면 다른 쪽도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나는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권리 영역 안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HIV 감염자, 에이즈 환자라는 집단의 권리 문제로, 소수자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할 때 더욱더 남성 동성애자나 여성 동성애자라는 구분은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것이다.



캠페인과 함께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을 나눠 주고 있는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들



AIDS에 관한 Q&A

에이즈감염자와 악수를 하거나 술잔을 돌리면 전염되나요?

HIV 감염자와의 콘돔(또는 페미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교,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 아니라 악수나 술잔을 돌리는 행위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원인균인 HIV 바이러스는 공기중에서 3초이상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HIV 감염자나 에이즈환자들은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이즈환자의 피가 든 주사바늘에 찔려도 감염될 확률은 0.3%입니다. 에이즈는 매우 악한 균입니다.

내가 '순결' 하면 안전한가요?

'안전한 성'에서 한사람만의 성적배우자라는 것은 "평생" "상호" 한사람만의 성적 파트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결'해도 상대방이 1년에 3사람과 성행위를 가진다면 나는 상대방을 통해 실제로는 12년동안(에이즈 잠복기) 53만여명과 관계를 가진 꼴이 됩니다. 따라서 누구도 에이즈에 대해 안전하지 않으며 나 혼자 '순결'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식은 에이즈예방을 위한 콘돔의 사용입니다. '순결' 운동은 에이즈 감염인/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겨 에이즈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실태를 알고 싶어요.

2001년 9월말 현재, 국립보건원 자료에 의하면 확인된 HIV 총감염인수는 1,686명입니다.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7%이며 이중 71%가 이성애자간 성접촉에 의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성애자간 성접촉이 원인이 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의 병인가요?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의해 성행위, 수혈 등으로 옮겨지는 바이러스성질환으로 동성애와 연관이 없습니다. 국내환자만 해도 이성애에 의한 감염이 더 많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나 인도, 남미의 경우 대다수의 환자들이 동성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에이즈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성'에 대해 평생 상호 한 사람만의 성적 배우자를 가지거나 아니면 성기-구강, 성기-성기, 성기-항문간의 어떠한 성교이든 콘돔(또는 페미돔)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을 경우 키스도 피해야

에이즈에 걸리면 결국 죽게되나요?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이제 에이즈는 '걸리면 죽는 병' 이라기 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이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높은 약값을 고수하여 남미와 아프리카의 에이즈환자들이 하루에도 만명가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윤추구 때문입니다.

정부는 에이즈가 예방가능하며 특정한 성적 지향성(sex orientation)을 가진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널리 알리려는 커녕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공식적인 에이즈 정보지원센터인 에이즈퇴치연맹의 홈페이지(www.aidsnews.net)의 에이즈사전을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동성연애자의 문란한 성접촉으로 감염이 잘 된다"라고 표현한다. 또 이 사전은 WHO에서 발표한 '안전한 성'에 대한 올바른지 못한 설명에 이어 동성애혐오를 유도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에이즈를 동성애자들의 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이성애자들은 예방행위에 소홀하게 된다. 또한 HIV에 감염된 사람들도 동성애혐오증이 두려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정부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에이즈 예방과 안전한 성에 대한 건강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정에서까지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HIV 감염인이나 에이즈환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감염인들이나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쉼터는 실질적으로 전혀 없는 상태이고 치료비 또한 에이즈치료약제비 이외의 지원이 거의 없어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검사비용이나 면역감소에 따른 여러 감염증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환자가 적지 않다.

감염인이나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것은 그들의 인권유린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정부는 말로만 에이즈 예방대책을 말하지 말고 에이즈감염인의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원, 치료권보장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2 11월 28일 AIDS 캠페인 유인물 내용

- 보험급여일수 365일 제안을 철폐하라.
- HIV 감염인과 에이즈환자의 실질적인 무상치료권을 보장하라
- HIV 감염인과 에이즈환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용쉼터를 개설하라
-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 명분없는 이라크 살인전쟁지원에 쓸 돈을 에이즈예방을 위해 사용하라
-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라
- 초국적제약회사는 에이즈치료제 약값을 즉각 인하하라!

EXZONE

동성애 차별정책 철폐

A&O

2002년 한해동안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장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은 국내 최초, 최고의 사이트였던 엑스존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고시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패한 사건일 것이다. 정부의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과 공격에 맞서 동성애자 차별 반대 공동행동을 꾸려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거리집회를 진행하면서 얻어냈던 많은 성과들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여전히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차단 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검색사이트에서 '동성애'나 '이반'이란 용어는 금치어나 성인전용 검색어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 사이트가 폐쇄되고 또한 동성애가 비정상 심지어 퇴폐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의 우리의 분노는 이제 한낱 과거의 일이 되었다. 엑스존이 행정소송에서 패했을 때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너무나 무관심했고 그런 차별에 대응하고자 결성되었던 동성애자 차별 반대 공동행동의 모습은 너무나 지리멸렬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 하고만 있을 순 없다. 엑스존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위원회나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논리대로 한 발, 한 발 뒤로 밀린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 매달려 허우적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엑스존 웹마스터는 패소한 것에 대해 의기소침해 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고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싸움이 단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란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또한 엑스존에게 지워진 음란이라는 굴레를 벗겨내고 더 나아가 청소년 보호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동성애자 차별조항들을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상황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추운 겨울 움츠러드는 우리의 고개를 곧추 세운다. 2002년 12월 2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차준)는 자신의 사이버아트 개인홈페이지에 본인과 아내의 누드 사진 작품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인규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싸우지 않는 자에게 언제 한 번 자유가 허용된 적이 있었던가? 자신의 많은 부분을 잃어가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 김인규 교사가 보여준 굳은 의지는 현재 우리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덕목이다. 김인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해 한치도 물러설 의향이 없다. 지금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청소년 보호법은 동성애자에게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쓰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자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장하는 청소년 보호 논리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회가 행해야 하는 것은 차단과 검열이 아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회가 어느 정도의 관용과 이해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는 사회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 놓여있다. 행정심판에 패소한 엑스존이 항소를 진행중이고 다음 번 정기국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끈덕지게 싸울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한 번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자유를 얻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시작되는 2003년 우리의 싸움에 엑스존이 다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제 다시 좌절은 없어야 한다. 굳은 의지와 끝이지 않는 정열로 희망을 만들어가자.

(동인련 사무국장 고승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제7조관련)에 명시된 동성애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정통온구축 [구]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선정기준 [차단목록업로드] 음란퇴폐속성 - 퇴폐 2등급 - 불건전사이트 링크/ 문신,낙인/ 동성애

8월 3일 정통온 발표: 본 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WANTED!

동성애자 인권연대 후원회원을 기다립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제반 활동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개인의 의식있고 성의있는 '후원참여'는 동인련의 운동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기금은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는 모든 행동과 사업에 규모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 정기후원: 매월 1구좌(10,000원) 이상을 자동이체나 지로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
- 비정기후원: 1구좌(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일시적으로 온라인입금
- 후원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정윤(동인련)



영화감상

게이 필름 '란위'를 보고

흔히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사회의 편견과 소외로 정체성조차 제대로 확립하기 어려운 동성애자들에게 그 소박한 사랑조차 굉장히 소원하게 느껴지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게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들이 동성애라는 것에 편견을 부추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단지, 우리가 동성을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굳이 도덕적인 만남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동성애자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저 겉모습에 쉽게 이끌려 몇번의 만남과 섹스 끝에 쉽게 맞지 않는다고 헤어지는 모습들을 보는게 그리 어려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밝혀두지만 나역시 한사람을 만나서 모든 것이 쉽고 어긋나면서도 한평생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저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만의 모습들을 우린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간과하고, 보려하는 노력조차 빨리 놓아버리는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생각은 '란위'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감정이기도 하다.

란위는 일반 통속 멜러를 빌어 그 안에 일반연인들과 다를것없이 달그럭 거러며 부대끼고 힘들어하는 게이 연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하고 언젠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흥사업가 한동은 그저 한번의 욕망을 위해 시골출신의 가난한 대학생 란위와 하룻밤을 보낸다. 둘 사이에 애뜻한 감정은 하룻밤에서 며칠을 보내고 다시 만나면서 더욱 커져가지만 순수하고 절실했던 란위의 감정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이

그저 욕망에 지나지 않을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동과 란위는 갈등에 휩싸인다. 란위의 감정은 그런 갈등과 반대로 깊어만 가고 한동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통역을 해준 여자와 몇번의 만남 뒤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식을 앞두고 란위는 한동과의 다름에서 이전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란 말을 하고 둘은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 헤어지고 나서 자신이 란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한동은 결혼생활도 지속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되고 길에서 우연히 걸어나는 란위를 보게된다. 다시 둘의 사랑은 더 깊어가고 한동은 란위의 미래를 위해 미국유학을 준비한다. 그러나 한동은 중국 공안에 사업이 의심을 받게 되고 급기야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안에 잡혀가기전 어렵사리 란위의 미국행을 위한 모든 서류와 준비를 해주었던 한동은 당연히 미국에 있을 거란 란위가 그 모든걸 포기 하고 란위의 명의로 사주었던 집과 몇 년간 힘들게 모아두었던 돈까지 자신을 위해 보석금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렵사리 풀려난 한동은 그런 란위와 만찬과 오랜만에 사랑을 나누고 다시 재기의 맘을 다진다. 그러나 란위는 한창 건설 붐이 일던 베이징의 한 건설현장에서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통속적이고 뻔한 스토리면서도 우리가 영화 '란위'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사랑이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란위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동도, 사랑하는 한동의 결혼을 보면서 가슴아프게 그를 보내주어야 하는 란위의 슬픔도 이 사회에서 동성을 좋아하는 아픔이 묻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갈팡질팡하는 한동이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반들 역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사회의 압력으로 결혼을 하고 있는 것도 한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한동을 다시 아무런 말없이 받아들인 란위를 보며 사랑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나라면 다시 만난 한동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란위는 진정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



보기도 했다.

이해와 넓은 배려는 사랑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요소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고 사는것은 아닐까. 영화 '란위'는 사랑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말하고 있다. 떠나간 한동을 사랑으로 보듬은 란위의 사랑이 슬프지만 아름다운 까닭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엔 아직도 관습과 편견으로 인해 '불륜'과 '변태'라는 한쪽만의 잣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사랑'과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에게 사랑이란 어쩌면 이 사회, 이 체제에선 사치로까지 보여지기도 한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사회의 억압과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동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란위였던 것이 힘든 방향속에서 얻어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란위의 그 슬픈 이별과 기다림이 없는 사회가 오기 위해선 우리모두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작은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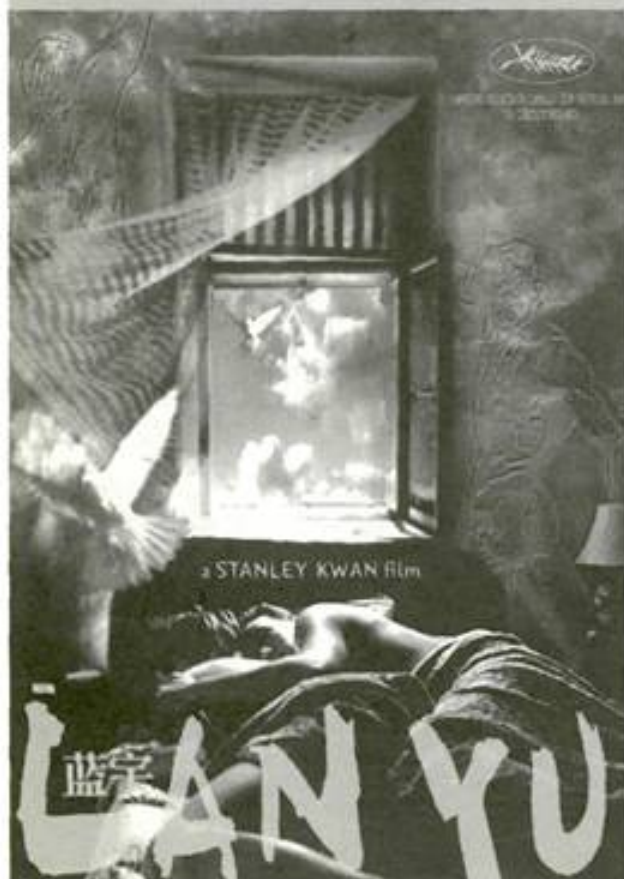
"형..나 이상한가봐. 형이 왜 이렇게 좋지?..."

란위가 한동과 마지막 밤을 보내며 했던 이 말은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내내 것들을 맴돌았다.

그리고 맘속으로 빌어 본다.

'란위..다음 세상이 있다면 꼭 동성애자들이 아무런 편견없이 소외받지 않는 사회에 태어나라...꼭...'

(동인련 편집담당 류이찌)



차별의 개념과 인권위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실효성

인권
인권
인권



1. 차이/차별/간접차별/차별심사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성 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끌고 없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나, 차이는 그 자체로 평등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 '빈곤'하다는 것, '동성애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빨간색 대신 파란색을 좋아한다는 것이나, 커피보단 녹차를 좋아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남성/여성, 부유/빈곤, 이성애자/동성애자의 차이는 위계화(位階化)되어 있고, 위계화된 차이가 곧 차별을 낳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고 있는 평등의 개념은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원하는 자위나-물건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배분하되, 그 성과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입시에 응시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한 어떤 사람은 대학에 입학하고, 어떤 사람은 입학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공부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업성취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이 때 차별은 합리성을 갖는다. 보다 성실하고 우수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상대적 평등이 종종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같다'와 '다르다'를 구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누구도 위계화된 차이에 자유롭지 않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업무수행능력에 직결되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해 또는 업무적 편의성(필수성이 아닌)에 의해 나이가 채용의 주조건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절대적 의미의 평등은 수학적으로만 가능하다.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평등은 언제나 '어떤 관점에서의 평등'일 수 밖에 없고, 평등심사란 결국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나를 심사하는 것이 된다. 영업사원을 관리직사원으로 승진시키는데 있어서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하는 것은 관리직사원의 자격기준(진정자격기준)과는 무관하고, 결국 이 상황에서 동성애자/이성애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과 같이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차별심사의 경험들을 누적해 온 국가들은 독자적인 차별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다.

가장 정교한 차별심사기준을 발달시켜 온 미국의 경우, 의도성이 있는 직접차별 뿐 아니라, 차별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차별까지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간접차별 이론을 불평등 효과 이론이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관행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특정한 집단에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경우, 차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별로 간주하는 것이다. 고용과 관련한 간접차별의 심사를 위해,

1. 원고(차별피해자)는 통계적인 비교방법을 이용하여 기업주의 관행이나 모집절차가 소수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끼쳤음을 입증해야 하고, (불평등 효과의 입증)

2. 고용주는 그러한 관행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사업상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진정자격기준 성립의 입증)

3. 고용주가 사업상 필요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불평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적인 관행을 고용주가 거절했음을 보여준다면 원고의 주장이 수용되게 된다.

불평등 효과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은 통계화된 방법에서부터 주관적 기준까지 다양하며, 진보적인 법원이라면 차별이 간접적·주관적·복합적일수록 피고에게 더 많은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된다.

나라와 문화마다 차별의 양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고유한 차별심사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을 모법에 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차별조사와 구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독자적인 차별심사기준은 전무하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법원이 차별심사주체로 기능하고 있으나, '일반적 사회통념'까지 차별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한국법원에겐 진정한 의미의 차별심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듯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연지오의 활동이 증대함으로써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주어졌지만, 낮은 차별감수성과 차별심사기준의 부재로 인해 차별문제의 해결은 아직 공백상태에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갖는 실효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조사대상 차별행위)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와 합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대한민국 법률에 등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체가 3년여간 투쟁하여 만들어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그것이다. 국가

인권 인권 인권

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을 당한 경우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구제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지향 차별금지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동성애자들의 활용 의지에 달려있다. 이 조항은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주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에서 동성애자인권단체가 적극 참여한 결과이며, 외국의 차별금지조항을 베껴오는 과정에서 Sexual Orientation이란 항목을 그대로 반영시킨 결과에 불과하다. 입법자들은 '성적 지향'의 의미조차 몰랐을 것이며, 입법 후 의미를 알게 된 순간 매우 당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이상,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해 노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재밌는 미국의 사례를 생각해 봐도 좋겠다.

1964년에 제정된 미국의 민권법 제7편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고용관련 국가인권기구라 할 수 있는 고용평등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민권법 제7편은 본래 60년대 한창 성행한 흑인운동을 바탕으로 인종차별철폐를 위해 입법추진된 것이었는데, 당시 한 의원은 여성차별금지

조항을 법에 삽입하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성차별조항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민권법 제7편은 제정되었고, 첫 해의 성차별 사건이 34%에 육박하게 된다.

그러나 적극적 활용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동성애자가 차별조사와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진정한 우선 원칙과 비밀준수조항에 의해 진정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는 있으나 익명성과 아웃팅의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성애자가 가장 차별받는 부분을 조사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한국 동성애자가 위 세 가지 영역에서 차별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 세 가지 차별영역은 미국의 차별금지법을 베껴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차별양태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적 상황, 특히 한국 동성애자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사건의 적극적 발굴과 활용을 통해 동성애자의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는 동시에 차후 한국적 차별양태와 맞는 영역(차별적 언사, 매스미디어 등 매체의 왜곡 보도, 제도에 있어서 배제의 문제 등)을 조사구제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명서

- 야후코리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대표되는 국가검열권력이 동성애를 청소년보호논리를 세워 공격한 것으로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분명히하고자 한다.”

야후코리아는 2002년 하반기부터 "동성애"라는 단어를 성인전용 검색 용어로 지정하였다. 야후 코리아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야후 코리아를 통하여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동성애자인권단체 및 동성애자 소모임을 막론한 모든 동성애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야후 코리아 회원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동성애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야후코리아가 그 외 성인전용 검색용어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포르노, 섹스, 패티쉬, 자위, 변태 등의 용어로 이것은 '동성애'가 그러한 것들과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불건전한 단어로 취급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10조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등과 같이 나열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근거하여 동성애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성애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법에 따라 야후 코리아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동성애사이트를 규제하는 자체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이러한 조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장한 반인권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 조항을 따르면 동성애는 음란함과 건전함을 떠나 무조건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근거로 한 동성애자 차별적 행위는 그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국내 최초 게이웹사이트인 '엑스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여러 차단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고 재판과정에서도 1심판결은 가슴아픈 결과를 가져왔으며, 차단소프트웨어 대표적인 회사 "수호천사"가 깔려있는 pc방에서는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모든 동성애자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동성애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곳이 접속 불가능하다. 급기야 야후코리아는 동성애를 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없는 금지어로 선정하여 자체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야후코리아만의 문제가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대표되는 국가검열권력이 동성애를 청소년보호논리를 세워 공격한 것으로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분명히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그 자체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불건전한 것이라는 인식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갖게하는 함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규정되어있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도 위반된다.

지난 11월7일 권위있는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한국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인권개선 권고문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터넷 검열을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한국의 정보통신부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검열을 강화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행하였다고 밝히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작성한 불건전사이트목록에서 '동성애'를 '음란외설' 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 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등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동성애 사이트의 무분별한 검열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간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야후 코리아가 '동성애'를 성인전용 검색 용어 목록에서 삭제할 것과 동성애 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HOT LINE (Hope Opens Tomorrow Line)

활동 방향

핫라인 구축

- 1) 핫라인 개통과 지속적인 홍보
- 2) 상담원 모집 및 교육, 관리
 - 상담교육용 교재 개발
 - 상담원 교육
- 3) 지원 시스템
 - 내담자 지원용 자료 개발
 - 연계 병원, 연계 법률망 체계 구축
 - 정기적 상담 사례 연구와 더불어 동성애 관련 상담에 맞는 상담 방법 개발
 - 연계 병원, 법률 사무소, 경찰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 강좌 진행
 - 자기긍정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룹 상담 진행
 - 동성애자의 가족을 위한 동성애 교육 프로그램 진행

교육문화사업

- 학교 상담교사 대상의 동성애 상담교육 진행
- 학교나 단체등의 동성애 관련 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홍보 활동
- 동성애 바로알기 책자 발간

차별제도개혁 사업

- 연구원 모집 및 지원 연구 선정
- 청소년보호법 개정 운동



자원봉사모집

동인련은 HOT LINE PROJECT의 상담사업 실시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애자 전용 상담기구가 없어, 기존의 다른 상담기구에 동성애 관련 상담이 일부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여성관련 상담단체(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를 비롯한 기타 상담기구들을 방문하여 동성애 관련 상담 사례(상담건수, 상담내용, 상담효과)를 조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담기법이나 지침, 매뉴얼 등을 수집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경력이 있거나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상담원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은

lgbt119@empa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동성애자 상담

상담은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며 상담에 대해 비밀보장하오니
안심하시고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 내용 ▶

- *에이즈 관련 - 청각 장애인 보건소 에이즈 관련 문의
- *장애인 차별 문제
- *개인적 고민 - 정체성 및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 문제

◁ 상담 방법 ▷

- *채팅 상담(오후 6시 - 오후 12시)
- *메신저 상담(오후 6시 - 오후 12시)
 - 채팅은 메일로 예약 후 가능하며, MSN메신저 실시간 상담
 - 역시 이메일로 메신저 교환후 가능함
- E-mail : jedais@empal.com
- *팩스 상담
 - 사무실 팩스를 통한 상담(fax : 02-2243-9983)
- *문자 메시지 상담
 - 핸드폰 문자메세지 만으로도 가능한 간단한 상담
 - 단,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하며 불필요한 문자메세지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 핸드폰 번호 : 011-9474-5830

한국 장애인 사이버 커뮤니티 제다이스
E-mail : jedais@empal.com

동성애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LGBT Health Promotion Project

LGBT 건강세상 - 건강증진 프로젝트 모임 <http://cafe.daum.net/pridecare>

◇ 모집분야

- 동성애자 의료인 :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약사 등
- 보건 의료 계열의 전문인 또는 대학생
- 동성애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의료인(동성애자 서포터즈) - 위와 동일분야
- 웹디자이너 또는 컴퓨터 전공자 또는 대학생

◇ 건강증진 프로젝트 내용

1. On-Line
 - ① 건강정보
 - 에이즈와 성병
 - 건강이슈
 - ② 정신건강
 - 자아존중감
 - 알콜중독과 약물중독
 - 우울 및 자살
 - ③ Link [Net-Work]
 - 국내외 건강관련 사이트의 연결
2. Off-Line
 - ① 건강강좌 : 겨울캠프 [동성애자와 건강]
 - ② 동성애자 건강학교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 주 1회 / 2개월 코스
 - ③ 진료의뢰
 - 내과, 비뇨기과, 정신과 및 기타분야

☎ 연락처

— 건강증진프로젝트 팀장 여가동 H.p 017-788-2505 / E-mail : pridecare@hanmail.net



축하와 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4기 출범을 축하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저는 동성애에 대해 사실 아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가끔 제가 아는 동성애자 친구들로부터 듣는 현실이 전부죠. 그것도 사회운동을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거의 몰랐던 현실입니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몇몇 동성애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왕성한 활동력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에 무척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거의 25년의 세월을 동성애를 마치 '병'처럼 취급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깐요. 이런 제게 그들과의 만남은 세상의 다른 면에 눈뜨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무지 속에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병역거부 운동을 하면서 저는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 병역거부자들의 대다수인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었다는 딱지는 그저 세상의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차차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성애 운동가와의 만남에서 깨닫던 것처럼 말이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편견과 불관용으로 뚫을 똥통 사회라는 것입니다. 근대화 과정의 고도성장과 군부독재 정권의



경험, 남북의 분단, 그로 인한 전통적인 국가안보관 아래서 대한민국은 다수 아니면 싸구 식의 논리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다수의 이익에 관계된 활동

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인권도 존중되지 않았고 심지어 교육시키고 악을 처서 반드시 고쳐야만 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논리, 힘의 논리는 운동 방식에도 그대로 전달되어 사실 소수자 인권운동은 그 설자리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 눈부신 진보를 했지만 말입니다. 비록 소수의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만큼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으면 합니다. 다수에 의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그대로 인정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사회를 위해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실 동성애자인권연대 4기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보다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의 연대 또한 그러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노력이라 생각되며 함께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동인련 제4기 출범에 즈음하여

신치호/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연대

제가 태어나고 살아온 동네는 이태원이란 곳입니다. 그곳은 참으로 다양한 국적과 인종, 그리고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이미 세계적(?)이었습니니다. 아빠가 미군대령이었던 백인아이 '밥', '독일아이' '마르코', 라면이라고 불리던 '레이먼' (국적은 북유럽의 어느 나라라는 것밖에는 기억이 안남), 그밖에 '빌리', '마이클' 등 참 다양한 국적과 피부색의 아이들이 저의 동무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같이 놀던 아이들 중 흑인이나 혼혈아는 항상 부하였고,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면 의례 '검둥이' 라거나 '너의 어머니가 술집여자' 라고 놀려며 욕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그런 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나 있었을까 싶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욕들이 그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만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차별 받는데 있어서는 그들의 부모도 다르지 않았고, 그들을 차별하는데는 온 동네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검다는 것이 단지 피부

색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데 삼십여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편견은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신과 다르다' 라는 이유로 집단적 무의식 속에서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게 만드는 오랜 고질병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편견은 육체가 아닌 정신을, 이성보다는 감성, 정서를 지배하고 있어 깨는 것이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적소수자의 역사는 인류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권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아쉬움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단적이고 집요하게 자행되는 우리사회의 지독한 편견과 싸우는 동성애자 인권연대 여러분의 존재는 참으로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여러분!

제4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더욱 분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덧붙여 또 다른 여러 소수자들의 문제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나아가 인권의 기준으로 세상이 바뀌는 그 날을 위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멋진 세상을 꿈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동성애자 당원/지지자 모임 "붉은 이반"입니다.

민주노동당 동성애자 모임 "붉은 이반" 올림.

제 16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동안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출발하게 된 우리 모임은 동성애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해방세상, 차별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해, 당당한 모습으로 살기위해 결성한 민주노동당 내 당원 및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동성애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노동자, 농민, 서민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라는 면에서, 소수자라는 면에서 동성애자 문제는 바로 우리 민주노동당의 문제이며 우리 당원/지지자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우리 모임의 생각입니다. 우리모임은 대통령 선거당시 민주노동당의 내용을 홍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여러분들께 민주노동당의 내용을 알려나갈것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붉은 이반은 동성애자 인권운동 제단체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아직은 역량이 미약합니다만)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이반 인권운동 제단체의 활동을 함께하고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이하 동인련)는 한국사회 동성애자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인권운동 단체로서 우리 "붉은 이반"은 동인련에 대해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제 단체들도 함께 든든한 친구로 생각하고 동인련의 활동에 함께할 것입니다. 동인련의 이땅 대한민국의 이반커뮤니티를 위한 운동의 장에 우리 붉은 이반은 항상 함께할 것이며 보다 굳건히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 제단체의 활동에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반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해 소수자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땅에서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합니다.



PLAY THE LIFE



play [pleɪ] v., n.

- ① ~을 하며 놀다
- ② ~을 조작하다
- ③ ~을 해내다



2003 제2회 겨울 동성애자 인권캠프

인권캠프 참여대상-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헤테로(이성애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성향을 가진 이.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일정-
2월 8일(토)~ 9일(일) : 1박2일
장소 : 경기도 가평 용두암 수련원

30,000원(1박2일 숙식비, 왕복교통비, 기타잡비 모두포함)
농협 297-12-076422 (박중익)

참가신청-
<http://outpridekorea.com/camp>

문의-
02-2235-7422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형진(011-9732-9315), 고승우(016-360-6253)

준비단체

경기대 이반모임 [강이로운자들] / 고려대 동성애자 모임 [사랑과 사랑] / 동성애자인권연대 / 서울대 이반은동모임 [미움005] / 세종대 이반이유너머 / 연세대 동성애자 모임 [컴투스게더] / 중앙대 이반모임 [Rainbow Fish] / 청소년 이반 모임 [Any 79] / 한국외국어대 이반모임 [HUFsaneVAN] / 한양대 동성애자모임 [이반한양]